

지역교회에서의 다문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in Local Church:
Focusing on the Volunteers' Experiences of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s**

강신아 (Shin A Kang)**

최은정 (Eun Joung Cho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utilizes a qualitative approach to delve into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among volunteers in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s. Six participants, each with over two years of volunteering experience in the foreign language worship department of a local church,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The analysis employed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revealed five categories: 'trapped within the walls of multiculturalism,' 'a feeling of despair that comes from indifference,' 'need for prio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 valuable path to serve the one soul that God is looking for,' and 'a mission that takes us to the end.'

The study's results offer a profound comprehension of the multicultural experiences of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 volunteers,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volunteer education, practical care and support, and missionary efforts for immigrants.

Key words: local church,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 volunteers, multicultural experience, Colaizzi's phenomenological study, migrant mission

* 2024년 2월 7일 접수, 3월 17일 최종수정, 3월 18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박사수료, 부산 서구 감천로 262, kangshina@gmail.com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교수, 부산 서구 감천로 262, jacob7410@kosin.ac.kr

I. 서론

2022년 한국 내 외국인주민은 2,258,248명으로, 2022년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4%를 차지하며,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 1.1% (주민등록인구 대비)에서 2022년 4.4%(총인구 대비)로 지금까지 통계 수치로는 최대 규모이다(행정안전부, 2022). 2022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유형별 비율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752,346명(77.6%), 한국 국적 취득자 223,825명(9.9%),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282,077명(12.5%)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23.0%), 외국국적동포(22.7%), 유학생(10.8%), 결혼이민자(10.0%) 순으로 많다(행정안전부, 2022). 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해 한국 기독교는 현재 '가는' 선교 패러다임에서 확장된 의미로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국내 타문화권 선교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신성임, 2023: 393). 이러한 변화에서 '이주'와 '이주민'은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주제가 되었다. 2022년 로잔대회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 2022)에서 이주민 선교는 미전도종족 선교의 긍정적, 효과적 전략의 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고, 세계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역으로 부상했다. 한국 문화와 교회를 경험한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본격적으로 그 민족을 위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선교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네트워킹을 이루고 이들의 사역은 현지의 복음화를 넘어 또 다른 타문화권으로의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성훈·문창선, 2016: 135).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 선교사역은 의의가 있다.

한편, 선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선교사의 문화적 이해와 문화를 뛰어넘는 소통능력은 또 하나의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는 자문화 중심적인 틀을 갖고 다른 문화로 들어가서 자문화적인 기독교를 전파하는 실수들을 범한다(송재홍, 2016: 40). 같은 맥락에서 국내 이주민 선교와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문제는 상황화된 사역 내용의 미흡성이다. 이주민의 눈높이와 문화·언어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예배로는 이주민 신앙의 지속적 유지가 어렵다(이미정, 2022: 4). 따라서 외국어예배부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다문화 경험을 통해 이주민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료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영, 2016: 349). 또한, 다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수용성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서연 외, 2018: 317). 높은 다문화 수용성은 사회의 주류인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명숙, 2020: 118) 해외자원봉사

활동자가 봉사활동 참여 후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강혜라·홍영준, 2015: 24). 다문화 멘토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져왔고 상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왔다고 하였다(김영순·박미순, 2016: 22).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일반인 봉사자와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경험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고 특별히 이들에 관한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경험의 현상에 대하여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관점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국내 외국어예배부에 참여하는 이주민을 돕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로서의 다문화 경험의 의미와 본질 구조는 어떠한가?” 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외국어 예배부

한국의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일어난 다문화현상은 한국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 초반에는 주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어 공단 또는 건설현장 주변의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와 들어오는 이주민의 신분의 다변화(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는 교회가 이들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문창선, 2016; 52, 53).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 기관은 그 형태에 따라 ‘교회부설’, ‘이주민기관’, ‘이주민 선교 기관’, ‘이주민교회’, ‘복합형태’, ‘자조 모임/독립이주민 교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황홍렬 외, 2013: 41). 그 중 교회 부설의 형태는 한국 교회가 모체가 되고 교회의 외국어 예배부 부서로 이주민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회의 예배유형은 ‘단일국가(언어) 중심 예배’, ‘다국적(언어) 예배’, 그리고 한국인과 이주민이 같이 예배하는 ‘연합예배’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이미정, 2022: 96). 일부의 교회에서는 이주민 언어별로 예배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외국어 예배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국가 예배는 언어와 문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친밀한 교제와 단합이 쉽고 효율적인 양육이 진행될 수 있다. 모범적인 다문화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주민들이 편한 언어로 예배하게 하고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 안에서 복음을 듣도록 목회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하도균, 2016: 697). 이는 다문화교회로써 가져야 할 태도는 이민자 안에 많은 다양성이 있음을 존중하여 그들의 교회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일국가 예배를 살펴보면, 예배공동체의 사역자들이 외국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외국인 사역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이주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경주, 2011: 23).

공동체 구성원이 동일한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단일국가(언어) 중심 예배는 ‘동질집단(homogeneous unit) 원리’가 적용된다(McGavran, 1980: 242). 동질집단 원리는 사람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자신이 속한 동질집단을 떠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원리이다. 국내 대부분의 이주민도 다국적 중심의 예배보다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 국가 출신에 초점을 맞추어 나라별·언어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고립되기 쉬워 한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배타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이미정, 2022: 98). 따라서 한국인 성도와 이주민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의 환경이 조성되고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건강한 이주민 예배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2. 다문화 경험

다문화 경험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말한다(김미중, 2019). 다문화 경험에는 다문화 가족의 유무, 외국인 친구와의 만남, 외국인과의 접촉, 다문화 봉사경험, 외국 방문과 다문화 교육과정의 참여와 같은 공식적, 비공식적 다문화적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정선아, 2019: 53).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다문화에 관한 수용성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공동체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중, 2019: 169).

간호학자 Leininger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하나의 세상”이라고 하였고, 특히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돌봄’(caring)을 수행해야 하는 간호학에서도 ‘횡문화적 간호’(transcultural nursing)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였다(Leininger, 2001: 798).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문화인들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돌봄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문화와 돌봄이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전체라고 주장했다(남미순, 2018: 259).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적 흐름 속에 간호사는 지역사회, 학교, 산업현장, 병원 그리고 교회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만날 전문 인력으로, 대상자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의미 있는 돌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적합한 문화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긍정적인 다문화 태도와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간호사는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들의 전인적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다문화 태도를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원적 사회에서의 상호 문화 간 관계’의 연구에서 다른 문화 집단 간의 접촉은 그들 사이의 편견을 줄이고 문화 간 접촉과 공유가 상호 수용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특히 문화간 접촉이 많을수록 다문화 이데올로기가 높아지고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Berry & Grigoryev, 2022: 85). 다른 문화 집단에서 온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과 자주 교류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문화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Berry, J el al. 2022: 1021). 실제,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조사에서 이주민을 목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국민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또한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 이주민과의 피상적인 접촉과 친밀한 접촉 모두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친밀한 접촉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보영·홍이준, 2021: 16). 접촉을 통한 다문화 경험은 집단 간 긴장 완화, 관계 개선, 편견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llport, 1979).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고 외국어예배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타문화권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민과 한국인의 접촉은 선교 인식을 제고 하고 선교 역량도 함양할 기회가 된다(이미정, 2022: 90). 이주민 선교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서 먼저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영적 공동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인과 이주민 계층과의 갈등을 줄여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문화에 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밝혀내고자 심층 면담을 하여 자료를 얻어 질적 연구 중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이다. Husserl의 개념인 판단중지(epoche) 또는 괄호 치기에 초점을 두어 연구자의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가두고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에서 보편적인 의미를 발굴해 내도록 하였다. Husserl의 선험적 현상학에서 영향을 받은 Colaizzi의 연구방법으로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통해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개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마일스와 휴버만(Miles & Huberman, 1994)이 제시한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접근 방식인 최대 변량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사전에 참여자나 현장을 구분하는 몇몇 기준을 정하고 기준과 상당히 차이가 많은 현장이나 사람들을 고르는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연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Creswell & Poth, 2016).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구체적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부산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의 외국어 예배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로 하였고, 둘째, 세례교인 이상인 자로서 풍부한 다문화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외국어 예배부 봉사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및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 수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특성상 유사점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시행할 때는 6~8명이 적당하므로(Kuzel, 1992: 31-44), 본 연구에서는 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	나이 (Age)	직분 (Duty of church)	예배부서 (Worship department)	봉사기간 (Period of service in the foreign language worship)
연구 참여자 1	44세	집사	네팔	3년
연구 참여자 2	48세	집사	미얀마	15년
연구 참여자 3	69세	권사	네팔	3년
연구 참여자 4	67세	권사	우즈베키스탄	4년
연구 참여자 5	66세	은퇴전도사	몽골	3년
연구 참여자 6	64세	안수집사	태국	20년

3.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였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할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장소이면서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하였다. 면담 시작 전 면담하는 내용이 녹음될 것임을 알리고 녹음된 파일은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다문화 경험은 무엇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필요시 진술 내용에 따라 필요한 형식적 진술문으로반구조화 된 면담을 이어갔다. 부가적 질문은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로서 외국인을 만날 때 좋았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로서 외국인을 만날 때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외국어예배부에서 봉사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배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외국어예배부에서 봉사하면서 생긴 마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였다(Table 2).

Table 2. Formal Statements

번호 (Number)	질문 내용(Question Contents)
1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다문화 경험
2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3	처음 외국인을 만나게 된 경험
4	외국어예배부를 봉사하게 된 동기

5	외국인을 만날 때 좋았던 경험
6	외국인을 만난 후 경험한 영적 유익
7	외국인을 경험한 후 인지한 타문화에 대한 태도
8	외국인을 만날 때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내용
9	기존의 한국 교회와 이주민 공동체의 다른 점
10	외국인들로부터 배운 경험
11	봉사하면서 생긴 마음의 변화, 변화된 관점
12	한국 교회가 외국인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세

연구자는 질문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포화 시점까지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 별 면담 횟수는 1~2회까지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120분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와 심층 면접 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각각 다른 연구 참여자의 체험 자료를 수집하여 그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려는 Colaizzi(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Colaizzi(1978)의 7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자료 전체를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적 인터뷰를 전사한 녹취록을 5회 이상 정독했다. 2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했다. 3단계는 의미 발견 단계로써 유의미한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암묵적 의미를 탐구했다. 4단계는 주제 결집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의미를 주제로 결집했다. 5단계는 포괄적인 기술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기술했다.

6단계는 명증한 진술로의 전환단계로서 5단계에서 기술한 내용을 명료한 기술로 전환했다. 이 명료한 기술로 전환한 과정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중요시하는 현상학적 괄호 치기와 자유 변경 절차를 따랐다. 7단계는 연구 참여자를 통한 타당성 검증단계이다. 연구자는 자료의 분석과 기술이 끝난 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연구자가 구성한 주제, 의미, 기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5. 연구의 결과의 질과 타당성 확보

연구자 준비로서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간호대학 박사과정생으로서 학업 중 질적 연구방법론과 분석론을 공부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부터 해외 선교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경험과 해외 거주경험이 있다. 또한, 해외 선교사역에 이어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째 사역 활동을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 294-331)가 제시한 엄밀성 평가 기준인 신뢰성, 전이 가능성, 의존 가능성, 확증성을 따랐다.

(1) 신뢰성(credibility)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다문화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2년 이상의 봉사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그들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였다.

(2)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

전이 가능성이란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집단,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다른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까지 자료 수집을 계속하였다. 또한, 연구와는 무관하지만, 다른 외국어예배부에서 다문화 경험이 많은 봉사자 2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었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 의미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통해 연구의 적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의존 가능성(dependability)

의존 가능성은 연구자의 일관적이고 추적 가능한 방식과 세심하게 기록된 연구 과정을 통해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때 의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노트에 작성하였고 면접 및 필사의 모든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여 사용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자료분석 과정에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4) 확증성(confirmability)

확증성은 신뢰성, 전이 가능성, 의존 가능성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킬 때 입증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경험에 대한 선 이해나 편견 등을 면담 전 연구 노트에 기술하여 검토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판단중지를 통해 자료를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료로부터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을 통해 연구의 확증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K 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심의 승인(KUIRB 2023-0018)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방법을 설명하였고, 신분 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연구 참여자 에게 동의를 받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 하였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도중 어떠한 불이익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으며, 언제라도 본인 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녹음한 파일과 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번호를 설정한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관된 자료는 연구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뒤 복원 불 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폐기될 것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면담에 응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범주, 15개의 주제 결집, 51개의 주제가 도출 되었다(Table 3).

Table 3. List of topics, collection of topics, and categories

범주 (Category)	주제 결집 (Collection of topics)	주제 (List of topics)
다문화의 벽 속에 갇힘	문화 차이로 인해 혼돈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를 드리는 모습의 차이로 당혹스러움 - 그들의 다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속상함 -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조장하기도 함 - 문화 차이로 인해 예의를 경시 여기는 것으로 여겨짐 - 민족의 특성으로 시간과 약속에 대한 개념이 달라 어려움
	외국인 사역자와의 언어적 소통이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말을 잘 못해 소통이 힘들 - 봉사자 중에 외국어를 하는 이가 없어 소통에 어려움이 됨 - 마음만이 아닌 언어를 통해 소통됨을 경험함 -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에 한계를 느낌
	다른 음식문화로 인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음식에 들어간 향신료가 복통을 일으켜 어려움을 겪음 - 정성껏 한국 음식을 대접해도 먹지 않을 때 찾아오는 서운함 - 외국식자재를 구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조리하기가 쉽지 않음
	표현의 부재로 인한 고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 소외감을 느낌 - 싫든지 좋든지 표현하지 않는 문화 차이로 인해 겪는 서운함 - 한국의 정서와 달라서 정이 없고 자신을 도움만 주는 사람이라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함
무관심에서 오는 허탈감	교회의 무관심 속에 쓸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믿는 성도들도 이주민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한 것 같아 쓸쓸함 -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 앞에 무관심뿐인 현실에서 찾아오는 쓸쓸함 - 빛도 없이 섬기는 마음이 섭섭함으로 여겨지기도 함 - 혼자 꾸역꾸역해움
	열매가 보이지 않아 회의감이 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마음에 회의감이 들어 힘들 -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고통이 찾아옴 - 성장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실망을 많이 하게 됨 - 한국정착을 위한 목적임을 알 때 실망함

선이해와 수용이 필요함	그들을 낮게 여기는 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이 나보다 더 낮고 똑똑한 사람임을 늘 생각함 - 고자세를 취하면 관계가 열리지 않음 -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함
	이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와 민족을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통하게 됨 -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도리어 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조심하게 됨 -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고 찾아줌
	언어 공부의 필요를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함 - 외국어를 공부하면 그들의 설교와 기도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음 - 외국인이 조금 하는 나의 외국어를 매우 반가워함
	그들에게 맞는 전략을 통한 복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와 민족마다 다른 성향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함 - 이주민 사역에는 더욱 전문적인 훈련과 자세가 필요함 - 복음 전하는 욕심보다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함 -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듯이 이주민의 곁에 가까이 와서 생활해야 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섬기는 값진 통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지에서만 만났던 사람들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값진 통로 -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먼 나라의 외국인을 한국에서 만남 - 외국인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깊이 만나게 됨 -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도움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음
	한 사람에서 그 민족을 섬기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가 끝이 아닌 선교지까지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됨 - 한 사람뿐 아닌 가정과 마을까지 전도하는 기회가 됨 - 한 사람에게 잘했더니 본국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옴 - 단일 부서가 아닌 그 민족의 교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기회가 없던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와서 신앙이 생긴 외국인이 대부분임 -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됨 - 힌두, 불교의 신앙적 배경 때문에 본국에서는 교회에 갈 생각을 못함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사명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으로 멀리 바라보고 넉넉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함 - 사랑이 동기가 되어 타문화를 배움
	가시밭길이라도 기도하며 나아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원동력이 됨 - 이주민을 만나면 일단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에 최대의 역량을 쏟음

1. 다문화의 벽 속에 갇힘

(1) 문화 차이로 인해 혼돈스러움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과 다른 문화의 이질감 속에서 혼란을 경험했다고 한다. 시간과 약속에 대한 개념도 달라 당혹감을 경험하고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에 비해 어른을 존중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예배에 있어서도 흥이 많은 문화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의 차이로 인해 놀라기도 하였다. 이주민과의 민족·성향의 차이로 그들의 다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속상하다고 표현하였다. 문화와 언어의 제약으로 서로에게 정확히 표현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걸 입고 세상에 우리 강대상에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일반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이나 추수 감사절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못 하잖아. 강대상에는 안 올라가잖아. 강대상에서 펄쩍펄쩍 뛰고 막 뒹구르고 난리가 났어... 나 기절할 뻔했다... 아주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 (연구 참여자, 3)

“몽골은 좀 낯설잖아. 우리가 와서 보니까 몽골 사람 성향이 너무 우리하고 사실 안 맞아서 힘들어서...” (연구 참여자, 5)

(2) 외국인 사역자와의 언어적 소통이 힘들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어 예배부의 외국인 사역자와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한국인 봉사자 중에 외국어 소통에 능숙한 이가 없고 외국인 사역자가 한국어가 서툴 때 의사전달의 어려움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과의 소통에서 마음이 통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하였지만 실제적인 언어의 장벽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계 형성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목사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죠. 그런데 들으면 ‘네, 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아닌 게 너무 많고 그 나라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해 그해 1년 동안 조금 힘들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5)

(3) 다른 음식문화로 인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들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한국 음식을 그들이 먹지 않을 때

속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음식문화를 따라 음식을 조리하려고 하면 외국식자재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조리방법을 따라 음식을 만드는 것이 서툴고 어색하여 힘들었다. 때때로 그들이 사용하는 향신료를 같이 먹고 복통이 와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우리 예배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이니까 자기들 음식 먹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음식을 해주려고 했지. 처음에는 외국 식자재, 향신료 찾으러 사상이고 어디고 사러 다니고… 음식도 할 줄 모르는데 찾아서 한다고 안 익숙해서 어려웠어요” (연구 참여자, 3)

(4) 표현의 부재로 인한 고충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들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좋은지 싫은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난감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때론 도움을 주고 나서도 표현이 없어 연구 참여자 자신이 저들에게 도움만 주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소외감과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네팔 사람은 싫든지 좋든지 사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도 좋은 건 표현을 하는데 싫은 거는 정말 표현 안 하거든요. 그냥 괜찮아요. 왜냐하면 체면 문화도 있고 제3자가 항상 이렇게 둘러서 하는 대화 방식이라서 그런 면들이 있을 때는 그게 서운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말 막 이렇게 하고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애는 항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연구참여자, 1)

2. 무관심에서 오는 허탈감

(1) 교회의 무관심 속에 쓸쓸함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 사역에 무관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 놀라기도 하고, 혼자서라도 묵묵히 해나가는 허탈하고 아쉬운 심정을 경험하였다.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 앞에 무관심뿐인 현실을 마주할 때 쓸쓸하기도 하였고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이 마땅하나 무관심 속에 때로 섭섭함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도 없고 아무리 제자 훈련해도… 놀랐어요. 전혀 관심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는다면 믿는 자 같으면은 당연히 선교는 자연스럽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열려 있지? 목사님이 맨 강당에서 이야기하

던데 구분해서 듣고 있는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연구 참여자, 4)

“힘들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교회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간섭도 하지 않고 간섭 안 하니까 좋았다는 생각보다도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혼자 좀 꾸역꾸역 좀 해왔던…” (연구 참여자, 6)

(2) 열매가 보이지 않아 회의감이 생김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을 만나고 오랫동안 열매가 보이지 않아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다. 같이 예배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느꼈지만 때로는 그들의 생계와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이중적인 모습에 낙심되는 마음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뿌리 깊은 다원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저도 이제 고민이었던 게 처음에는 여기 센터에서 시간이 됐을 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안 보여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너무 해결은 안 되고…”(연구 참여자, 2)

“실컷 같이 1년 2년 예배드리고 앞에서 찬양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주님을 바로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취업이나 생업이나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뒤늦게 알 때 있잖아. 너무 실망하고”(연구 참여자, 3)

3. 선이해와 수용이 필요함

(1) 그들을 낫게 여기는 시선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을 만날 때에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국민으로서의 고자세로 그들을 대할 때에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나그네와 같은 이주민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일단 이주민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하고 들어가요. 이분이 내보다 더 낫고 더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똑똑한 그 속에서 저들의 언어로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넣어줄까 이걸 고민해야지” (연구 참여자, 4)

(2)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

연구 참여자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주민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되 자기중심적이고 자문화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하여야 함을 구술하였다.

“그런 뭔가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기준에서의 사랑이나 도움을 주도록 사랑을 주더라도 그게 아니 저들의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2)

“우리나라 음식을 너무 못 먹더라고요. 들어오는 식당 가면 거의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성을 좀 알아보니까 치킨이나 밥하고 이런 걸 잘 먹는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치킨집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연구 참여자, 6)

(3) 언어 공부의 필요를 느낌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즉 선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주민과의 관계에서 언어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겼다.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들의 설교와 기도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금의 외국어를 하는 모습에 이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반가워함을 보면서 언어 학습의 필요를 더욱 느꼈다고 하였다.

“선교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안되고 같이 어느 정도 언어도 알고 번역기도 쓸 줄 알고 그래야지 서로서로 소통이 잘 되죠...”(연구 참여자, 4)

(4) 그들에게 맞는 전략을 통한 복음 제시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을 만날 때에 전문적인 자세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주민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는 준비된 태도가 있어야 함을 구술하였다. 나라와 민족마다 다른 성향을 파악하고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욕심이 앞서는 것을 주의하고 먼저 이주민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듯이 이주민들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냥 와서 공부 가르치고 또 만나서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는 어려워요. 더 프로페셔널한 그게 이제 요구되는게 저는 이주민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준비된 자들이 많이 오고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해서 보내야 된다고 그걸 생각해요. 한국말 외국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오세요. 이런 건 안돼요. 애들한테 언어도 배우려고 마음먹고 있고 만약에 우즈벡이면 우즈벡어라도 조금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야 돼.”(연구 참여자, 4)

4.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섬기는 값진 통로

(1)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연구 참여자는 먼 외국의 선교지에서 만났던 외국인을 이곳에서 이주민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귀한 경험이라고 하였다.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품었던 영혼을 향한 마음을 이곳에서 유지할 수 있어 감격하였다. 물리적 거리로 인한 제약과 삶의 여러 이유로 갈 수 없는 땅의 사람들을 이곳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것을 특권이라 여겼다. 특히 예배를 통하여서 이주민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주민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랑보다 도리어 많은 것을 얻는 귀한 영적 통로라고 하였다.

“제가 한국에 온 뒤로 외국어 예배부가 없었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계속 그 영혼들을 향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통로 저는 그게 가장 값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연구 참여자, 1)

(2) 한 사람에서 그 민족을 섬기게 됨

연구 참여자는 자신에게 온 한 사람을 보고 섬겼을 뿐인데 그 사람을 통해 본국에 있는 가족들, 마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주민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에 감동되어 그 가족과 친척을 이곳으로 부르는 일들을 경험하며 이주민 사역의 선교적 가치를 발견하였다. 이에 외국어 예배부를 하나의 부서가 아닌 그 민족의 교회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는 이 한 사람을 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한 가정과 그 마을... 어떤 친구들은 제가 미안마 오면 오세요. 우리 마을 사람 다 모아줄게 여기로 다

말하세요. 복음 마음대로 전해주세요. 다 모아준데.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계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프리패스예요.”
(연구 참여자, 2)

“이 한 사람이 나이 많은 이 사람한테 내가 잘했더니 짝 다 들어왔고 애들도 이제 여기서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나라 본국에서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자꾸 부르잖아요.”(연구 참여자, 4)

(3) 기회가 없던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음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회를 이주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연히 자신의 나라에서는 힌두와 불교의 신앙적 배경 속에 살면서 교회에 올 생각도 기회도 접하지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 명의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봉사하는 외국어 예배부서 구성원의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신앙이 생긴 이주민들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저는 더 한국에 지금 이주민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봐야 되는 것들이 그들이 네팔 안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힌두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에 갈 생각을 안 하죠... 네팔에서 전혀 기회가 없던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 다니는 문턱을 넘었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시간에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지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연구 참여자, 1)

“여기 예배부 사람들은 한국 와서 신앙이 거의 와서 생겼고 이 예배부에서 한 분만 몽골에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도 유학생들 오는데 친구들이 몽골에서 다니러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데리고 오지만 이 친구가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연구 참여자, 5)

5.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사명

(1)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연구 참여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하였다. 실질적으로 이주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다른 음식과 문화,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유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였다. 이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하고 힘에 부치게 여겨질 만큼 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고된 일과 그들과의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넉넉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귀찮고 힘들어져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왜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노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도 애들 오면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맛있게 먹는데 아침부터 닭 굽고 오잖아.”(연구 참여자, 3)

“그 나라 음식 나 못하지. 내가 뭐가 뭔지 그 저기 식사 요리 이름도 모르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구해갖고 뭐 전에는 메뉴판 보고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그냥 뭐 사고 뭐 사면 또 응용해서 뭘 넣어도 되고 또 그게 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2)

(2) 가시밭길이라도 기도하며 나아감

연구 참여자는 사랑으로 이주민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이 길이 마치 가시밭길과 같은 좁은 길이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주민을 만나면 일단 기도로 시작하고 섬김에 최대의 역량을 쏟아부으면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원동력이 되어 나아갈 때 가시밭길이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가시밭길인지도 모르고 나오니까 진짜 막 갈 데도 없고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운명 그러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그런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도하며 또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또 그거고 해서 그 길을 쭉 가는 것 같아요. 하는 게 더 즐겁고...”(연구 참여자, 6)

“기도하다가 딱 봤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슬프고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교회에 걸려 있는데 미얀마 국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한테 왜 미얀마 국기 없고 우리 미얀마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국 분들도 미얀마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연구 참여자, 2)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다문화 경험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의 벽 속에 갇힘’, ‘무관심에서 오는 허탈감’, ‘선 이해와 수용이 필요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의 값진 통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사명’이라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교지에서 장·단기간의 다문화 경험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깊이 개입하게 될 때 마주하는 갈등과 어려움에 당혹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타 문화권 관계접촉에서 문화적 차이로 고립감과 소외된 느낌을 경험한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홍석희, 2018: 213).

Rosaldo(1993)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만나는 공간을 ‘문화 접경지대’라고 하였다. 이는 인종, 젠더, 국적, 생활양식 등이 다른 사람들 간의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것으로 간주해온 사람들에게는 신경증적인 감정 즉 ‘접경지대 히스테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보다 이주민의 비중이 높고 그들과의 교류가 많은 외국어 예배부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어 예배부 봉사자에게 지속적인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는 외국인 사역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외국어 예배부에서 외국인 사역자는 이주민의 문화적 공복감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며, 이주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다양성을 향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임희모, 2015: 275).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외국인 사역자와 한국인 봉사자 사이에서 문화 및 언어의 차이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사역자와 외국인 사역자가 함께 다문화 선교사역자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국의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 유입과 함께 국내 이주민 선교가 하나의 선교적 과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낯선 문화와 환경의 공간으로 이동한 선교사는 새로운 문화권 안에서 문화충격을 경험하고 언어, 관계, 일상생활, 감정과 가치관, 이해력의 상실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안홍철, 2021: 163). 또한 선교사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소진되었다는 사실이나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내면화하게 되면서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위기를 맞게 되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박선희·오윤선, 2023: 6). 이는 사역의 현장은 국내이지만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주민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봉사자들을 지지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봉사자들의 전인적 필요와 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수용성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류은진, 2022: 130).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백정미·권정미, 2019: 119). 따라서 외국인들을 더욱 낮게 여기는 시선을 통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외국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언어 학습의 필요를 인식하였다. Lapresta et al.(2019: 217)는 언어는 문화적응에서 핵심적 요소이며 이는 문화적응의 지표로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 외국인들과 한국인 봉사자 간의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에게 맞는 전략을 통한 복음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라와 종족별로 다른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전략을 통한 선교와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섬김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언어 교육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고, 이주민 그룹별로 선교전략을 구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섬김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선교지에 나가야 만났던 영혼들을 국내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선교를 금지하는 개종 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늘면서 해외의 선교지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이처럼 외부의 선교 환경은 선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주민 선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신성임, 2023: 402). 국내의 이주민 선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비공개지역과 선교전략 지역인 10/40창¹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미전도 이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값진 통로인 것이다. ‘내 집 앞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귀한 섬김의 기회로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는 외국어 예배부에서 만난 한 명의 이주민을 섬길 뿐이었으나 이것이 곧 가족과 친구 그들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Wan & Tira의 연구에서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국내의 친구, 친족,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국의 친구, 친족, 이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Wan & Tira, 2010: 47). 이주민도 본국의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통하여 복음을

1) 루이스 부쉬(Luis Bush)가 처음 소개한 용어로, 세계 지도상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을 가리키며 대다수의 미전도 종족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음.

들게 되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이주민 사역의 장점으로 이주민 본국에 비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라는 것과 유사하다(Terry & Payne, 2015: 304). 따라서 이곳에서 만나는 한 명의 이주민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깊이 있게 관여하였다. 그들의 임금 체불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구직의 문제를 돕고 그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주민 나라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섬김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랐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순간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많은 이가 가지 않는 좁은 길, 척박한 가시밭길과 같은 이 여정 속에서 기도가 자양분이 되어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간호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믿음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영성은 연구 참여자를 짓누르는 현장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였다(한미영·손수경, 2017: 280). 따라서 외국어 예배부 봉사자들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소명의식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훈련과 양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논의해 보았을 때, 외국어 예배부 봉사자에게 지속적인 타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과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의 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서로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 사역자들도 함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정서적·심리적 귀속감뿐만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귀속감을 가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 이에 한국 교회는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도록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주민 선교에서 이 땅에서 만나는 한 명의 이주민을 품는 것이 한 민족과 세계를 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이주민의 유형에 맞는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온 나그네인 이주민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교회의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지지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겪는 고충을 살펴보고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다문화 태도를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이들의 섬김 속에 이주민 선교의 선교적 가치를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민의 유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중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지역교회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를 대상으로 최대변량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이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다문화 관련 요소는 연구 대상자의 거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의 편중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수를 확대하거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양적 연구 등의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혜라·홍영준 (2015). 해외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청소년학연구**, 6(2), 1-36.
- 김경주 (2011).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교회의 대응**.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미중 (2019). 임상간호사의 다문화태도, 문화적역량과 영향요인. **인문사회** 21, 10(1), 159-174.
- 김성훈·문창선 (2016).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이주민 선교. **미션인사이트**, 7, 132-139.
- 김영순·박미숙 (2016). 진지한 여가로서 다문화멘토링 봉사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14(2), 87-111.
- 남미순 (2018). 라이닝거의 문화 돌봄이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 **범한철학**, 91, 257-284.
- 남보영·홍이준 (2021). 외국인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81-208.
- 류은진 (2022).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과 문화적 공감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통합의학회지**, 10(2), 125-134.
- 문창선 (2016).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 7, 51-74.
- 박명숙 (2020).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4, 115-146.
- 박선희·오윤선 (2023). 선교사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침습적 반추와 정신건강 문제의 구조적 관계연구. **복음과 상담**, 31(2), 5-39.
- 박소영 (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4(12), 345-355.
- 백정미·권정미 (2019).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3(3), 117-147.
- 송재홍 (2016). 선교사 훈련의 중요성과 방향. **활천**, 752(7), 38-41.
- 신성임 (2023).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국내 이주민 선교: 패러다임 특징 분석과 이주민 선교 현황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9, 389-417.
- 안홍철 (2021). 아시아 선교사의 소진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선교신학**, (63), 155-188.
- 엄주연 역 (2015). **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선교전략 총론**. Terry J. M. & Payne J. D. (2013). *Developing a strategy for missions (encountering mission): A biblical, historical, and cultural introduction*. 서울: CLC.
-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 이미정 (2022). **한국교회 이주민선교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예배와 양육의 상황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임희모 (2015).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다중다문화선교 리더십. *신학논단*, 18, 267-299.
- 정선아 (2019).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태도의 관계에서 다문화 지식과 다문화 인식의 매개효과 및 문화적 공감의 조절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하도균 (2016).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회 정착과 복음전도를 위한 연구. *신학과 실천*, (52), 681-710.
- 한미영·손수경 (2017).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앙과 학문*, 22(3), 265-288.
- 행정안전부 (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홍서연·손병덕·손주희 (2018).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 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거주 국민을 중심으로. *다문화 평화*, 12(3), 300-324.
- 홍석희 (2018). 타 문화권 선교사들의 정서적 탈진과 대응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선교신학*, 0(61), 202-241.
- 황홍렬·노일경·정노화·박홍순·황진상 (2013). **이주민 기초조사 보고서**. 서울: 꿈꾸는 터.
- Allport, G. W. (1979).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Berry, J. W. & Dmitry, G. (2022). An adaptationist framework to examine intergroup contact. *Psychology in Russia: State of the art*, 15(4), 83-100.
- Berry, J. W., Lepshokova, Z., MIRIPS Collaboration, Grigoryev, D., Annis, R. C., Au, A. K. & Ziaian, T. (2022). How shall we all live together? : Meta-analytical review of the mutual intercultural relations in plural societies project. *Applied Psychology*, 71(3), 1014-1041.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McGavran, D. A. (1990).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 Kuzel, A. J. (1992). *Sampling in qualitative inquiry* (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Lapresta-Rey, C., Caballe, E., Huguet, A. & Janes, J. (2019). Linguistic Uses and Formation in Language and Culture of Origin. A Tool for Socio-educational Integration?. *Círculo de Lingüística Aplicada a la Comunicación*. 77, 217-232
- Leininger, M. M. (2001). Current issues in using anthropology in nursing education and service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3(8), 795-806.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Rosaldo, R. (1993). *Culture &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ton, Mass: Beacon Press.

Wan, E. & Tira, S. J. (2010). Diaspora missiology and missions in the context of the twenty-first century. *Torch Trinity Journal*, 13(1), 46-60.

“The Cape Town Commitment”, Lausanne occasional paper(LOP). Retrieved from [http://https://lausanne.org/statement/ctcommitment\(2024.2.6\)](http://https://lausanne.org/statement/ctcommitment(2024.2.6)).

지역교회에서의 다문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in Local Church:
Focusing on the Volunteers' Experiences of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s**

강신아 (고신대학교 박사수료)

최은정 (고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교회의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다문화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실시한 질적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지역교회의 외국어예배부에서 봉사자의 경험을 2년 이상 경과한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문화의 벽 속에 갇힘', '무관심에서 오는 허탈감', '선이해와 수용이 필요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섬기는 값진 통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사명'의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다문화 경험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봉사자들의 교육과 실제적 돌봄과 지지방안, 그리고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전략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역교회, 외국어예배부 봉사자, 다문화 경험, 콜라지 현상학적 연구, 이주민 선교